

Contents

취 지

엠블럼 및 로고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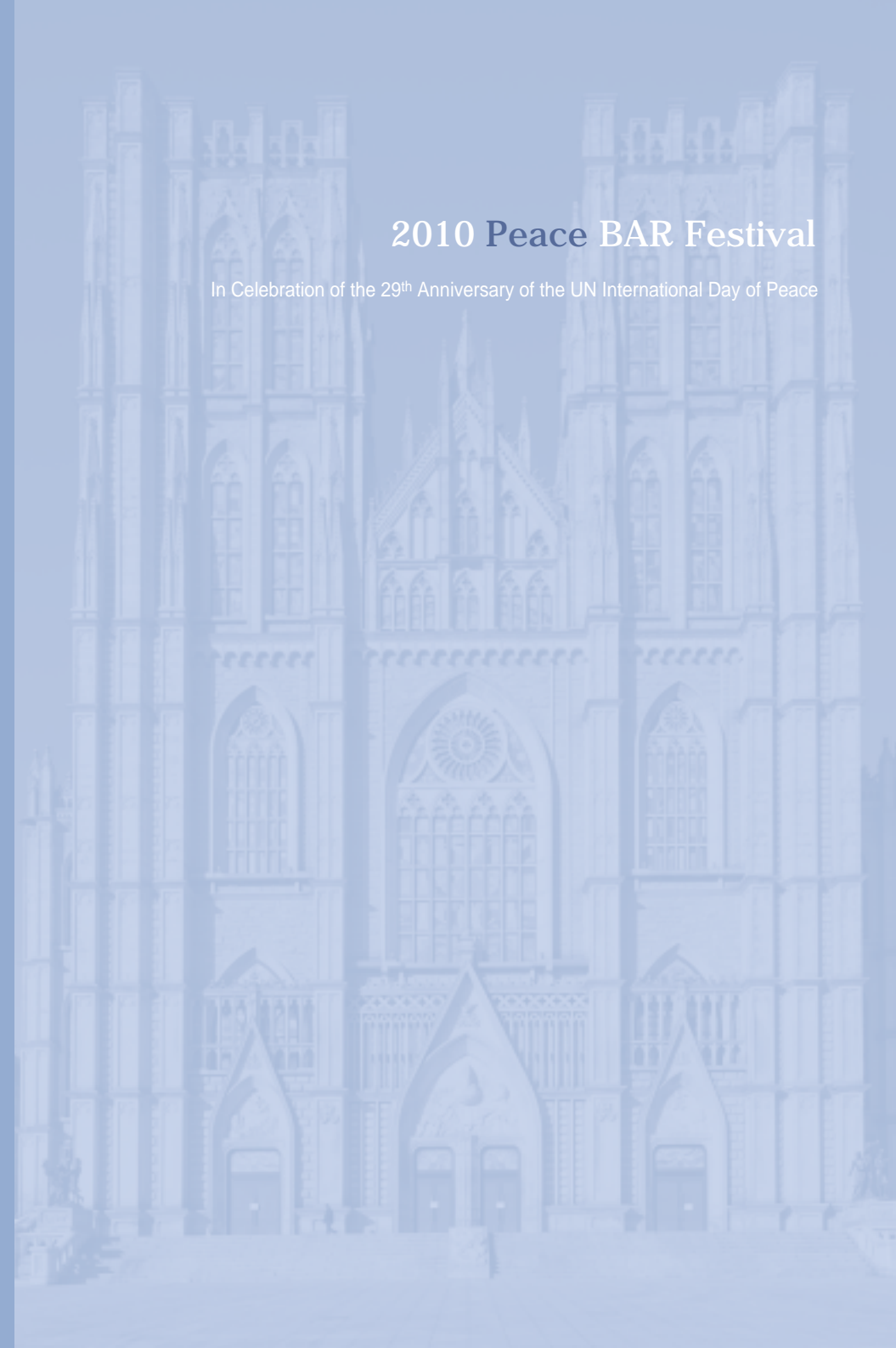
행사구성

종합일정

프로그램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미래문명포럼
경희 학생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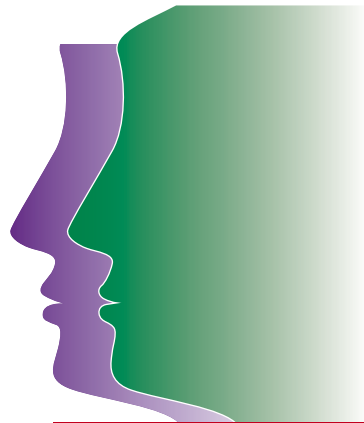
2010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9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0 Peace BAR Festival



Peace BAR Festival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2010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9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취 지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다. 눈은 액정화면에서 떠날 줄 모른다. '자연의 몸'과 '문명의 매체'가 일체를 이루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세계를 구성한다. 21세기 과학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발하는 인공지능 로봇, 매트릭스 등 인조인간의 탄생을 예고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문명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를 다시 물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몸과 문명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근원적 존재 기반인 몸이다. 몸은 공기처럼 너무나 가깝고 또 늘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적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몸'이 자리잡고 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나 관념 덩어리가 아니다. 마음의 운반도구도 아니다. '나는 내 몸'이다. 몸은 삶과 죽음, '나'와 타자, 자연과 문명, 현실과 환상, 과거와 미래, 억압과 욕망을 동시에 수렴하고 발산한다. 공명하고 활동하는 스토리-텔링의 주체이자,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는 사회적 장이다. 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몸의 삶에 대한 전방위 성찰을 통해 소통 가능성과 공동체 비전을 발견하는 몸-담론, 몸-실천이 요청된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미래다.

경희대학교는 '몸과 문명'을 키워드로 '2010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한다.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철학과 과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새로운 보편 가치를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 지식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더 나은 인류사회를 설계하는 미래문명포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경희 학생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0 Peace BAR Festival'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하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공동사회를 꿈꾸는 세계시민의 교류와 화합의 제전이 될 것이다.



엠블럼 및 로고

엠블럼



로고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개요

2010 Peace BAR Festival은 2010년 11월 3일(수)부터 11월 5일(금)까지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 사 명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0 Peace BAR Festival
주 제	몸과 문명 : 나는 몸이다 The Body and Civilization: The Body Matters
기 간	2010년 11월 3일(수) ~ 5일(금)
장 소	경희대학교
참 가 대 상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원)생, 일반 참가자
주 최 / 주 관	경희대학교 / 미래문명원
후 원	중앙일보

행사구성

2010 Peace BAR Festival은 국제학술회의, 미래문명포럼, 경희 학생포럼으로 구성된다.

미래문명포럼

- 미래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봉사

경희 학생포럼

- 21세기 글로벌 리더와 교양교육



국제학술회의

- 몸과 문명 : 삶의 새로운 지평
(The Body and Civilization: A New Horizon)

2010 Peace BAR Festival



종합일정

일시		프로그램		장소	
11월 3일(수)	10:00 ~ 13:00	미래문명포럼	미래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봉사	법과대학관 401호 (국제회의실)	
		경희 학생포럼	21세기 글로벌 리더와 교양교육	청운관 B117호	
11월 4일(목)	10:30 ~ 11:30	국제학술회의	개 회 식	평화의전당	
	13:00 ~ 14:30		기조발표 1	몸과 철학	
	14:40 ~ 16:10		기조발표 2	몸과 문화	
	16:20 ~ 17:50		기조발표 3	몸과 예술	
11월 5일(금)	10:30 ~ 12:00		기조발표 4	몸과 기술	청운관 B117호
	13:30 ~ 15:00		기조발표 5	몸과 생명	
	15:20 ~ 17:30		라운드테이블	몸과 삶의 세계	



프로그램

1.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몸과 문명 : 삶의 새로운 지평
The Body and Civilization: A New Horizon

2. 미래문명포럼

- 미래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봉사

3. 경희 학생포럼

- 21세기 글로벌 리더와 교양교육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1993)

주 제 몸과 문명 : 삶의 새로운 지평
 The Body and Civilization: A New Horizon

경희학원은 현대의 삶과 문명현상에 대한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생명 및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범지구적 교류협력과 문명 담론의 장을 열어왔다. 오늘 우리는 작은 몸인 생명체와 큰 몸인 우주 공동체를 성찰한다. 경희 구성원과 세계 석학이 자리를 함께 해 인간이 역사문명의 주체로 거듭나는 인간적인 인간사회, 생명과 삶이 새로워지는 문화세계,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신뢰가 구현되는 “몸과 문명”의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간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 손과 손이 맞잡을 때,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때, 몸과 몸이 소통할 때 비로소 사랑과 평화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일 시 2010년 11월 4일(목) ~ 5일(금)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및 청운관 B117호

프로그램

1.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 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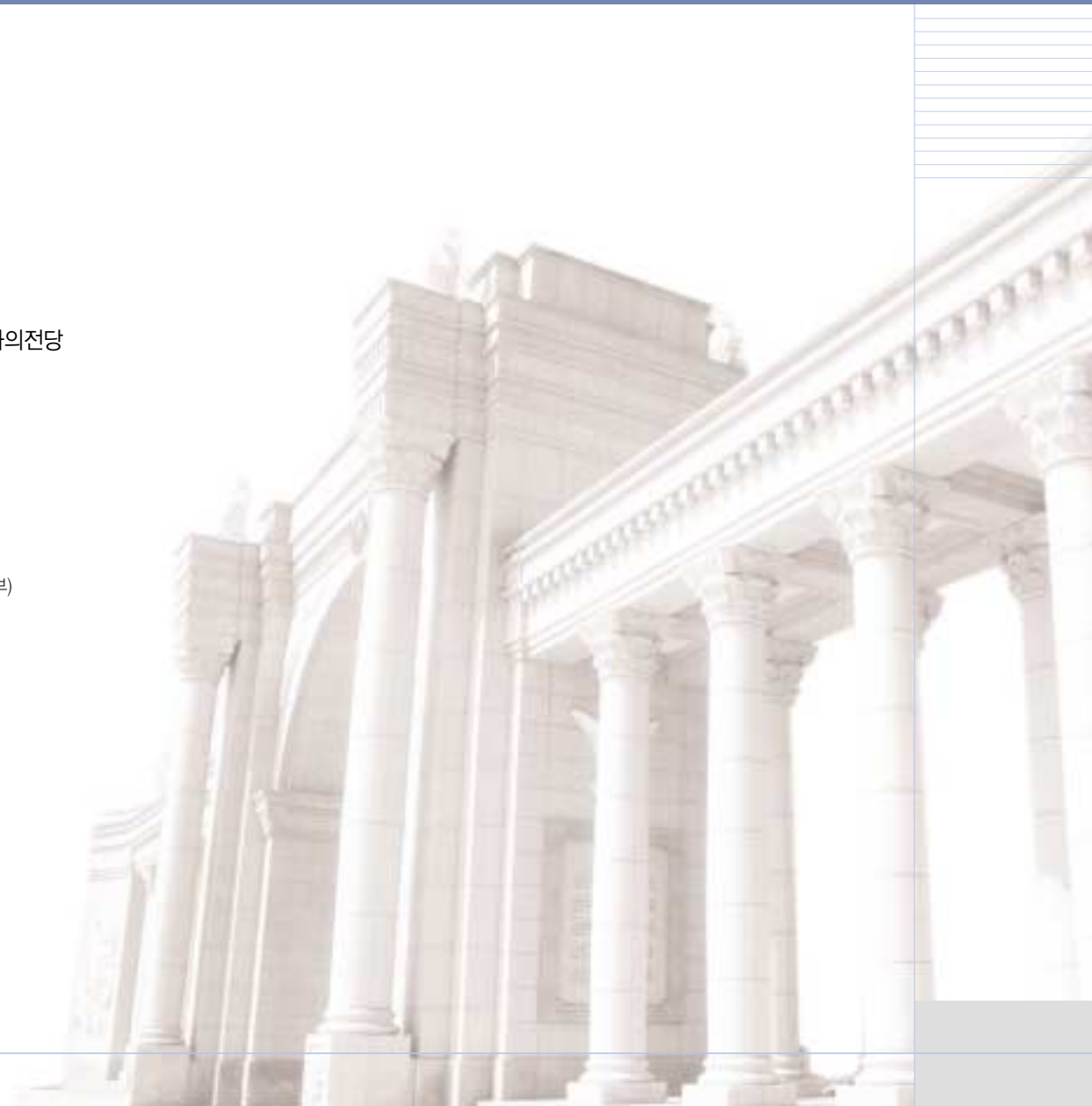
2010년 11월 4일(목), 10:30 ~ 11:30 /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사 회 신 은 희 (경희대학교 교수)

개회선언 공 영 일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환 영 사 조 인 원 (경희대학교 총장)

특별공연 "영원한 생명의 근원, Emi"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기조발표 1

주 제 몸과 철학

인간은 몸으로 생각한다. 알기 전에 알고, 느끼기 전에 느낀다. 몸은 세계를 발견하는 인식의 통로이자 지평이다. 몸은 스스로를 확장하고, 몸과 몸의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 또한 살아있는 몸, 생각하는 몸이다. 자연도 지구도 우주도 몸이다. 몸의 재발견을 통해 인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사 회 권 택 영 (경희대학교 교수, 영문학)

발 표 Mark Johnson (University of Oregon 교수, 철학)
"Why the Body Matters for Philosophy"

토 론 오 중 환 (서울대학교 교수, 철학)

전 중 환 (경희대학교 교수, 진화심리학)

일시/장소 2010년 11월 4일(목), 13:00 ~ 14:3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기조발표 2

주 제 몸과 문화

인간은 몸과 몸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누린다. 몸은 수많은 기억과 의미를 몸 자체에 새기며 신비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문화에 대한 탐구는 개별자인 몸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공동체인 몸의 관계를 성찰하고 삶의 다양한 양태와 실천을 가능케 한다.

사 회 김 상 준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학)

발 표 Tu Weiming (Peking University 교수, 철학)
"The Body and Culture"

토 론 김 수 중 (경희대학교 교수, 철학)

정 인 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동양철학)

일시/장소 2010년 11월 4일(목), 14:40 ~ 16:1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기조발표 3

주 제 몸과 예술

인간은 예술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성찰한다. 몸이 그리워하는 과거와 몸이 꿈꾸는 미래 사이에서 예술은 진위(眞僞), 선악(善惡), 미추(美醜)의 경계를 넘어선 색다른 세계를 묘사한다. 몸은 예술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분출하며 삶의 의미를 묻고 새로운 이슈를 던진다.

사 회 신 은 희 (경희대학교 교수, 종교문화)

발 표 Richard Shusterman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교수, 철학)
"Somatic Style"

토 론 김 진 엽 (서울대학교 교수, 철학)
이 영 란 (경희대학교 교수, 공연학)

일시/장소 2010년 11월 4일(목), 16:20 ~ 17:5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프로그램

1.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발표 4

주 제 몸과 기술

인간은 몸을 쓰면서 삶을 확장한다. 몸은 안식을 갈망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열망한다. 테크놀로지는 욕망하는 몸의 존재 방식을 응용해 물리적·심리적 한계를 넘어선다. 진화하는 기술은 로봇, 매트릭스, 아바타 등을 통해 인간의 육체를 해방시키고자 한다. 문명인의 몸,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 회 강 곤 (경희대학교 교수, 기계공학)

발 표 Hubert Dreyfu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철학)
"Computation as Salvation: Awaiting Binary Bodies"

토 론 남 순 건 (경희대학교 교수, 물리학)
신 상 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철학)

일시/장소 2010년 11월 5일(금), 10:30 ~ 12:0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기조발표 5

주 제 몸과 생명

인간은 몸으로 산다. 동서양의 의과학은 몸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인간이 생명을 변형하고 조절하며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놀라운 성취를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몸과 생명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다시 캐물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현상이 삶과 문화의 전반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사 회 정 서 영 (경희대학교 교수, 약학)

발 표 Anne Harrington (Harvard University 교수, 과학사 및 의학사)
"Culture and the Body: Insights from the History of Mind-Body Medicine"

토 론 강 신 익 (인제대학교 교수, 의철학)

차 웅 석 (경희대학교 교수, 의사학)

일시/장소 2010년 11월 5일(금), 13:30 ~ 15:0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라운드테이블

주 제 몸과 삶의 세계

몸은 몸과 더불어 삶을 영위한다. 몸이 놓여있는 현실은 슬한 욕망이 출몰하고 서로 충돌하는 세계다. 현대인의 몸은 인간소외, 환경파괴, 빈곤과 기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요청된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동시에 지적 호기심을 뛰어넘는 실천적 담론이어야 한다.

- 진 행 권 기 봉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학)
사 회 Hwa Yol Jung (Moravian College 명예교수, 정치학)
토 론 Mark Johnson (University of Oregon 교수, 철학)
Tu Weiming (Peking University 교수, 철학)
Richard Shusterman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교수, 철학)
Hubert Dreyfu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철학)
Anne Harrington (Harvard University 교수, 과학사 및 의학사)
조 인 원 (경희대학교 총장, 정치학)
김 흥 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정치학)
도 정 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영문학)

일시/장소 2010년 11월 5일(금), 15:20 ~ 17:3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Mark Johnson은 University of Oregon 철학과의 Knight Professor로 인지과학 및 인지언어 분야에 크게 공헌했고, John Dewey와 Kant 그리고 윤리학 등의 철학적 주제를 주로 다뤘다. 그는 1987년 저서 *The Body in the Mind*에서 인지언어학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그는 예술철학, 인지과학, 언어철학, 도덕론, 칸트 연구 등에 대해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했다.



- 주요저서**
- *The Meaning of the Body: Aesthetics of Human Understanding* (2007)
 -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1999)
 -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1993)
 -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1987)

Tu Weiming은 Harvard University의 공자연구, 중국역사와 철학 분야의 Harvard-Yenching Professor로 재직했고, 현재 Peking University 철학과 종신 교수이다. 그는 대만 Tunghai University에서 중국학 학사(1961), Harvard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1963)와 동아시아 언어 및 역사학 박사(1968) 학위를 받았다. 그는 Harvard-Yenching Institute의 Director(1996-2008)와 미국 예술과학원 회원(1988년 이후) 등을 역임했다.



- 주요저서**
- *Confucian Spirituality* (2004)
 -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1998)
 -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1996)
 - *Confucian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1989)

기조발표자 소개

1. 제 29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Richard Shusterman은 실용주의 철학자로 현재 Florida Atlantic University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서 학사(철학 및 영문학)와 석사(철학)학위를, St. John's College, Oxford University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철학 뿐만 아니라 문학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철학적 미학(philosophical aesthetics)에 대한 그의 공헌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주요저서**
- *Body Consciousness: A Philosophy of Mindfulness and Somaesthetics* (2008)
 - *Surface and Depth: Dialectics of Criticism and Culture* (2002)
 - *Performing Live* (2000)
 - *Pragmatist Aesthetics* (1992)



Hubert Dreyfus는 Harvard University에서 학사(철학, 1951년), 석사(1952년), 박사(1964년) 학위를 받았다.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현상학, 실존주의, 심리학 및 문학이다. 그는 Brandeis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Frankfurt, Hamilton College 등에서도 강의했고, 주요 저서 *What Computers Still Can't Do*는 한국어를 포함한 11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 주요저서**
- *Heidegger, Coping, and Cognitive Science* (2000)
 -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1992)
 - *What Computers Can't Do* (1972)
 - *Alchem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1965)



Anne Harrington은 Oxfo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신과학, 신경과학, 행동과학 분야 전문가이다. Harvard University의 “Mind, Brain, and Behavior Initiative”의 공동 책임자였으며, MacArthur Foundation Research Network on Mind-Body Interactions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불교와 과학 분야의 소통을 위한 기관인 Board of the Mind and Life Institute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을 사회과학의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잡지인 Bio-societies의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다.



- 주요저서**
- *The Cure Within: A History of Mind-Body Medicine* (2008)
 - *Unity of Knowledge: The Convergence of Natural and Human Science* (2001)
 - *Reenchanted Science* (1996)
 - *Medicine, Mind and the Double Brain* (1987)

Hwa Yol Jung은 Emory University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University of Florid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몸 철학’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학계에서도 저명한 학자이며,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정치학에 접목해 ‘정치현상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일궈낸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또한 현대미술에 나타난 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논문에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미술 작품을 자주 언급했다.



- 주요저서**
- *The Way of Ecopiety: Sinism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2008)
 - *Body Politics, Art and Ecology* (2005)
 - *Comparative Political Cultur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2002)
 - *Body Politics* (1999)



주 제 미래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봉사

경희는 개교 이래 문화세계 창조를 구현해온 역사적 전통 위에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연구, 실천의 유기적 결합을 이뤄내고 미래지향적 대학 문화가 형성될 때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미래문명포럼은 대학문화의 새 패러다임 창조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노력을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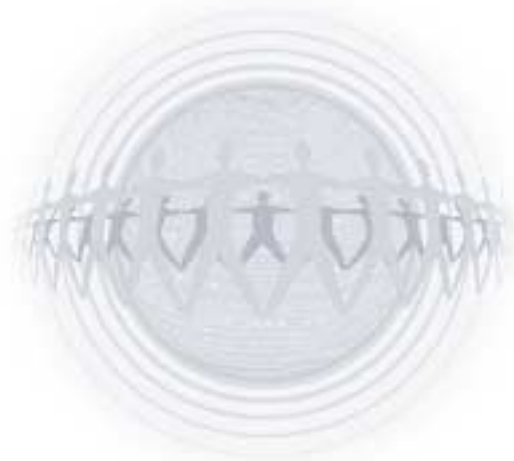
구 성 1부 : 미래대학과 사회봉사
2부 : 종합토론

사 회 우 기 동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발 표 최 희 섭 (미래문명원 사회공헌팀장) “대학의 교육, 연구 그리고 실천의 창조적 융합 ‘Global Service Corps’”
박 선 민 (아름다운재단 사무국장) “대학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한 제언”
신 상 문 (메디피스 사무총장) “대학 사회공헌을 위한 NGO와의 협력 방안”
최 우 석 (경희대학교 교수, 한마음봉사단장) “학내 봉사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방안”

토 론 김 중 원 (노동조합 위원장), 신 정 우 (경희봉사단장), 권 오 은 (대학주보 편집장)

일시/장소 2010년 11월 3일(수), 10:00 ~ 13:00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관 401호 (국제회의실)



3. 경희 학생포럼

주 제 21세기 글로벌 리더와 교양교육

오늘날 대학은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연구, 실천의 끊임없는 혁신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는 대학의 근본 역할과 목적을 재성찰하고, 대학교육의 품격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거교적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신설했다. 경희 학생포럼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시각에서 교양교육을 재조명해 21세기를 선도할 미래대학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구 성** Special Lecture: “21세기 글로벌 리더와 교양교육”
 초청 연사 : 도 정 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Plenary Session 1: “한국 대학교육의 현황과 교양교육”
 Plenary Session 2: “Humanitas College를 향한 제언”

- 사 회** Special Lecture: 김 선 영 (자율전공학과)
 Plenary Session 1: 주 재 익 (정경대학 사회학과)
 Plenary Session 2: 엄 윤 지 (법과대학 법학부)

- 발 표** Plenary Session 1: 김 경 민 (문과대학 철학과), 전 수 현 (정경대학 무역학과)
 Plenary Session 2: 박 설 희 (법과대학 법학부), 최 영 윤 (정경대학 무역학과)

- 토 론** Plenary Session 1: 김 경 애 (국제대학 국제학과), 조 규 혜 (문과대학 사학과), 허 한 욱 (법과대학 법학부)
 Plenary Session 2: 송 창 근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전 성 기 (문과대학 사학과), 정 영 현 (경영대학 경영학부)

일시/장소 2010년 11월 3일(수), 10:00 ~ 13:0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UN 제 36차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고, 2010년 현재 제 29주년을 맞고 있다. 역대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 1982 *Crisis and Peace in Contemporary World*
 - 1983 *World Peace: Is It Possible?*
 - 1984 *World Peace Through the UN*
 - 1985 *U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1986 *Search for Caus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Ways to Their Solutions*
 - 1987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80s*
 - 1988 *The North-East Asian Era and the Rol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 1989 *Peace Beyond the East-West Conflict: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World Peace in the 1990s*
 - 1990 *The Search for a New World Peace Order with Reference to the Changes in the East-West Relations*
 - 1991 *New World Order: The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
 - 1992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
 - 1993 *Peace in the Northeast Asia: Toward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 1994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 
- 1995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6 *Peace Strategies for Global Community and the Role of the UN in the 21st Century*
 - 1997 *Visions and Realities in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East Asia*
 - 1998 *Global Visions Toward the Next Millennium: Modern Civilization and Beyond*
 - 1999 *Will World Peace Be Achievable in the 21st Century?*
 - 2000 *Global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 2001 *Toward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 2002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Pax UN*
 - 2003 *Building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Neo-Renaissance*
 - 2004 *Urgent Tasks for Peace: Overcoming Terrorism*
 - 2005 *After Ideology: The 21st Century Talks*
 - 2006 *Reinventing Universality for the 21st Century: Beyond Freedom and Equality*
 - 2007 *Transformative Challenges: In Search of New Humanity and Community*
 - 2008 *Future Civilization, Future University: A New Horizon for Knowledge and Praxis*
 - 2009 「Kyung Hee Peace Workshop」
-



